

World View

그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미얀마 난민 수용소를 가다(상)

글=임연태(시인 본지 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후원=대한불교진흥원/다음카페 '히말라야의 꿈'



어린이들은 늘 배가 고파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버릇이 있다. 한 어린이가 이른 아침부터 사탕수숫대를 입에 물고 있다.

#공포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가난과의 전쟁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을 이루는 산악지역은 무려 800km에 달합니다. 이 국경 산악지역의 정글은 사람이 살기에 매우 불편하지만, 300만여 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크고 작은 수용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 난민은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종족, 민주화를 위해 무장한 세력과 정부군의 총격전, 대규모 시위와 무력적인 진압 등 공포에 못 이겨 국경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해 11월 7일 20년 만에 총선을 치르고 군사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의 이양을 선언했지만 '군복에서 양복으로 옷만 바뀐 입을 뿐 정치세력의 판도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미얀마 안팎의 견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랜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는 대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선언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얀마의 민주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지역에서는 수시로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수천 명의 난민이 발생, 태국 영토로 넘어와 난민수용소가 형성되고 합니다. 난민수용소는 전기나 수도 등의 생활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가족도 모두 대나무를 엮어 지은 임시주택일 뿐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서방 NGO들의 구호품(1일 두 끼 분의 식사와 간단한 의류)에 의지해 살아가는 난민들의 생활은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입니다.

국내에서도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고 불교계에서도 각종 단체가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태국 국경도시 마에(Mae Sot)를 중심으로 일부 국제구호단체와 선교사들이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비해 불

교계에서는 영봉 스님(네팔 세종한국문화와 언어교육원장)이 3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학교와 고아원 사원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대불교는 새해를 맞아 불교계의 나눔 문화 확산과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난민들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메솟에서 남쪽으로 240km 지점(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인근)에 위치한 누포캠프(Nu Pho Camp)와 메솟 외곽의 난민 고아원 '뉴블러드 스쿨(New Blood School)'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누포캠프는 7개의 사원과 불교중학교가 있지만 불교계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서 한국 불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1997년 이 캠프가 설립될 당시에는 겨우 난민 90%가 불자였지만, 지금은 60%가 기독교 신자로 개종했음을 이번 취재에서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불교계의 국제구호 사업에 대한 현주소일지도 모른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불교계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태국 국경지역 미얀마 난민수용소를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사방 2km에 2만 명 생활 '제한된 자유' 누려
닭울음소리에 잠을 깬다. 지금 내가 누워 있는 곳은 아주 특별한 마을입니다. 마을입구에는 'NU PHO TEMPORARY SHELTER AREA'라는 영문이 태국어 아래 적혀 있습니다. '임시보호구역'이라는 의미인데, 보호구역 안의 사람들은 군부독재와 종족 갈등으로 인한 내전 등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누포캠프는 사방 2km 지점에 2만여 명이 살고 있는 집단 수용소입니다. 시설이 관창은 18층 규모의 골포장 면적이 30만평 이상인데, 10만평에 2만여 명이 산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빠를까요? 강원도 정선이나 영월 군민 전체가 4만 명을 조금 넘는다는 것이 이해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포캠프가 있는 반누포(Ban Nu Pho)라는 마을은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 밀림지역에 있는데, 태국 영토 전체를 놓고 보면 중앙에서 서북쪽에 위치합니다. 이 일대에만 미얀마 난민 수용소가 9개나 있고 거기 사는 난민의 수는 대략 3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집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800km에 이르는 태국 국경 전역의 난민캠프는 수백 개에 이르고 난민의 수도 3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누포 캠프는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멀리 보이는 산 너머(10km 가량)가 미얀마 땅이라고 합니다. 누포캠프는 1997년에 형성 됐습니다. 미얀마와 태국의 접경 지역인 이곳은 카렌 족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렌족이고 카렌어를 씁니다. 미얀마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온 난민들이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하자 UN 산하 NGO 단체들이 태국을 설득하여 캠프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난민들이 매우 난감한 존재였겠지만, 그들이 산악지역 안의 난민 캠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땅을 내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997년 이 캠프가 설립될 당시에는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삶의 양상이 정착되고 나름대로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장이 서고 캠프 안에 상가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설립되고 학교에 대한 NGO와 선교단체의 지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근의 태국인 소우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 오기도 합니다.

생존율 50%의 위협적인 상황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감옥행이 되고 마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도 미얀마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을은 자체적인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며 가난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것은 물질의 문제이지 정신의 문제는 아니어서 캠프는 오래전 서울의 달동네를 처럼 빈곤의 터전에 평온이 깃들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캠프 안에서는 어떤 범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면 그것을 비밀로 캠프가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난민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필수품을 파는 가게는 있어도 술을 내놓고 파는 곳은 없습니다. 서로 가진 것이 없으므로 남의 것에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한창 나이에 하루 두 끼 밖에 못 먹다니
나는 어제 저녁을 이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들의 부엌은 단순합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식탁이 두 개 놓여 있고 가운데 불을 때는 아궁이가 있는데 아궁이 위로는 솥 세 개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맨 앞의 솥이 가장 큰데 거기는 물이 가득하고 위로 다섯 개의 솥을 위로 포개어 쌀을 넣고 커다란 뚜껑을 덮어 찌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증기를 이용한 다중 점동 시스템입니다. 그 뒤로는 국을 끓이는 작은 솥이 걸려 아궁이 불길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식사는 간소합니다. 밥 한 접시에 야채와 멸치를 넣어 끓인 국물 한 국자가 전부입니다. 어떤 아이는 솥자락을 사용하고 어떤 아이는 손으로 먹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라 각자 자란 환경에서 배운 대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의 아이들은 하루에 두 끼 밖에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식량 사정이 넉넉지 못한 탓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10~19세 청소년들이 묵고 있는 기숙사에서 하루 두 끼라니! 간식이나 특식은 고사하고 하루 세 끼 밥이 보장되지 않으니! 통탄을 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하루 세끼 밥은 줄 수 있게 하리라 다짐해 보지만 아이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랄 일은 또 있었습니다. 불교중학교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불교중학교이지만, 태국은 물론 어느 나라의 불교계에서도 이 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방문하는 일도 없습니다. 캠프 안에 들어 온 많은 교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즐거움과 먹을 것이 있는 교회로 발길을 옮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아들이 내리는 식당에 앉아 아이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는 무슨 공부야 재밌어?"
"공부요? 다 재미있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공부하지만 이곳의 학교는 미얀마로부터도 태국으로부터도 공식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언젠가 나라 사정이 좋아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까막눈'으로 살 수 없으므로, 언젠가 이 캠프를 벗어나게 되면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므로 '졸업장'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사도 먹어야 가르치죠"
"Buddhist Mission Middle School NuPoe"
불교중학교는 누포캠프의 동쪽 야트막한 언덕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전승과 정맥전법계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신간! 화두 / Hwa-du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 영역되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지 법만 사부대중 일동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063)561-1419
선운사성보박물관 063)561-1421
선운사승려노후수행관 063)561-1422
건립추진위원회 063)561-1418
백파사상연구소 063)563-1111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4교구 승려노후수행마을 조성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번지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